

2011 새해에는

4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

상생 노사문화로 50만대 생산

“쏘울·스포티지R·K7 등 ‘디자인 기아’는 세계가 인정합니다. 이젠 디자인뿐만 아니라 품질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김종웅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장은 12일 “그동안 기아차는 디자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디자인만 좋고 품질이 안 좋다면 무슨 소용 있겠느냐”며 “일등 품질”을 강조했다.

광주 출신으로 3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김 공장장은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광주공장이 성장했다”며 “지난해 완성한 50만대 생산 체제를 풀 가동해 역대 최대 생산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공장장은 올해 광주공장의 사업 목표를 ▲고객 중심의 생산 체제 정착 ▲공정품질 혁신으로 일등품질 실현 ▲지속성장을 위한 글로벌 수익기반 확보 ▲기분과 원칙을 준수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가 어긋나면 올해 생산 목표인 50만대를 달성할 수 없고 품질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광주공장이 지속적으로



디자인+품질 고객만족 지역민의 사랑에 감사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존 경쟁을 펼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현실안주는 곧 퇴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공장이 언제나 앞서 가고 발전하려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외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쏘울의 북미시장 인기·스포티

지R의 내수 물이 등을 감안하면 올해도 광주공장의 전망은 밝지만 환율 하락·고유가·유럽의 재정 위기·중국의 긴축 재정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 공장장은 “광주공장은 국내 자동차공장 중 가장 잠재력이 크고 경쟁력이 살아있는 공장”이라며 “한때 연간 6만대 생산량에도 못 미치던 광주공장이 이제는 국내의 최고 인기 차종인 쏘울·스포티지R 등을 중심으로 50만대 양산 체제를 갖춘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장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41만1196대를 생산, 사상 최대 생산 실적을 기록했고, 노사가 20년만에 부분급교섭을 이뤄 상생의 새 역사를 썼다. 그는 “이같은 성장은 지역민의 각별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지역경제 살리기와 나눔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공장장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25회)와 경기에 경영학박사를 졸업했다. 지난 1984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1999년 기아차로 옮겨 화성공장 엔진변속기공장 담당 등을 역임한 생산전문가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광주 취업자수 9000명 늘었다

호남통계청 12월 고용 동향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광주는 소폭 증가한 반면 전남은 2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실업률은 광주가 3%, 전남은 2%대를 기록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0년 1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취업자수는 6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00명(1.3%) 증가했다. 또 구직활동에 나선 실업자도 2만2000명으로 1000명(5.2%) 증가했고 실업률은 3.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취업자는 8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 비율로는 2.1% 줄었다. 특히 실업자수가 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명(15.3%)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실업률 2.0%로 0.3%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광주 58.1%, 전남 62.1%로 광주는 0.1%, 전남은 1.3%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고용률도 광주가 56.2%, 전남이 60.9%로, 각각 0.2%와 1.5%포인트 감소했다.

전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238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3000명이 증가해 취업

경기회복 기대감에 구직활동 증가 전남은 취업자수 1만9000명 감소

자 수 증가 폭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 규모가 줄어 공공행정 취업자가 7만 2000명 감소했지만 수출과 내수 경기 개선에 힘입어 공공행정 이외 부문에서 39만5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실업자는 9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이 증가해 실업률도 3.7%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자 수 증가 폭이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 규모가 줄어 공공행정 취업자가 7만 2000명 감소했지만 수출과 내수 경기 개선에 힘입어 공공행정 이외 부문에서 39만5000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실업자는 9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1000명이 증가해 실업률도 3.7%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통계청, 설 물가 급등 대비 성수품 가격조사

통계청이 서울 수유재시장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조사 대상 품목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를 포함한 총 22개다.

통계청이 설 물가 급등을 대비해 설 성수품에 대해 매일 가격 조사를 하기로 한 12월 이인실

통계청장이 서울 수유재시장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조사 대상 품목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를 포함한 총 22개다.

광주 휘발유 값 220곳 ㄹ 당 1800원 이상

전국 평균가 모두 1800원 넘어

전국 휘발유 값 평균이 ㄹ 당 1800원을 돌파하고 경유는 1600원을 웃돌면서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보통휘발유를 ㄹ 당 1800원 이상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70곳에서 3주 만에 822곳으로 급증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운영되는 석유가격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유일하게 1700원대를 유지했던 전북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일일 평균가격이 1800.64원을 기록하

면서 전국 16개 시·도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모두 1800원을 넘어섰다.

전국 광역단위 시·도의 보통 휘발유 일일 평균가격이 1800원을 모두 넘은 것은 2008년 8월8일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ㄹ 당 1816.70원을 기록했으며 전체 주유소 333곳 중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이상인 주유소가 220곳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 ㄹ 당

1816.30원을 기록, 지난해 11월 4일(1700.65원) 이후 10주째 상승세다. 전남지역 전체 주유소 960곳 중 휘발유 가격이 1800원 이상인 주유소도 602곳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 중 강진, 나주, 진도, 화순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었다. 신안군은 ㄹ 당 1834원으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

보통 휘발유를 가장 비싸게 판매하는 곳은 광주시 동구 D 주유소로 ㄹ 당 1898원에 판매해 19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홍삼, 아토피 치료효과 입증 가톨릭대 조상현교수팀 국제의학지 발표

국내최초로 홍삼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새장을 열게됐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조상현 교수, 성민센터병원 이지현 교수 연구팀은 아토피 피부염 생쥐 모델에서 홍삼의 효과를 밝힌 연구논문을 SCI급 대체의학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Journal of Ethnopharmacology)’ 11월호에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삼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항알러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아토피피부염에서 홍삼의 치료효과에 대한 동물실험이나 이전에 관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쥐 모델 중 홍삼추출물을 복용한 군에서 임상 중증도, 쿨 두께, 혈청 IgE 농도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고 aprepitant를 복용한 군에서 혈청 IgE 농도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홍삼을 아토피 피부염의 새로운 치료제로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기자 lion@kwangju.co.kr

래미안·자이 아파트 선호 브랜드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GS건설의 ‘자이’,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460명을 대상으로 ‘2010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및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선호도 및 인지도가 높았던 10대 브랜드에는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현대건설), 센트레빌(동부건설),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위브(두산건설), 더샵(포스코건설), 캐슬(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아파트 구입시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70%에 달했고, 응답자의 90.4%는 브랜드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 브랜드가 상품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구제역 피해고객에 삼성생명 특별지원

삼성생명은 구제역 피해고객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삼성생명 고객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등의 납부를 6개월간 미룰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2월 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에 살처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서울로 Go Go' KTX tour. Includes a large image of a KTX train and a scenic view of a city. Text: 서울로 Go Go ~ KTX타고가는 신나는 겨울여행. www.4100tour.com

Table with 4 columns: 교통, 시간, 일정, 비고. Lists travel routes and schedules for Seoul tours. Includes sub-tables for '1일차' and '2일차' itineraries.

Table with 4 columns: 교통, 시간, 일정, 비고. Lists travel routes and schedules for Seoul tours. Includes sub-tables for '1일차' and '2일차' itineraries, and a '요금안내(당일)' section.